일손 부족·가축전염병·이상기후…전남 농민 ‘속타는 봄’

법무부 불법체류자 단속 후폭풍
진도서 외국인노동자 자취 감춰
대파 수확·출하 전면 중단 차질
무안·영암 구제역 피해 하소연
나주·구례 이상저온 냉해 시름

완연한 봄날이지만, 농민들에겐 가혹한 계절이다. 일손부족과 가축전염병, 이상기후까지 삼중고에 전남 농민들은 하루를 버텨내기 힘들다.

◇일손이 없어서 아우성=진도에서는 최근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실시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취를 감췄다. 대파를 출하해야 하는 시기 작업이 전면 멈추면서 수확과 출하가 중단됐다. 지난 3월 초 진도군 일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이 시작되며, 대파 수확 작업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

대부분 진도에 거주한 고정 인력이 아닌, 차량 단위로 전국을 돌며 일하는 ‘작업반’ 형태의 외국인들이었으며, 이들 다수가 대파 작업에 투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 대파 작업은 수확 이후 일정 시기에 맞춰 선별·포장·출하까지 이어지는 연속 공정이 중요한데, 인력이 끊기면서 해당 작업이 중단된 것이다. 수확 시기를 놓치면 상품성이 떨어지고 ‘동이 나는’ 현상이 발생해 아예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다.

농가들은 “당국이 불법체류 단속을 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시기상 너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작업 일정이 밀리며 농협 단위 작업도 차질을 빚었고, 작업 순서를 기다리던 다른 농가들도 영향을 받게 됐다.

예전엔 작업마다 한국인들 포함해서 25~30명을 고용했는데 현재는 외국인 5~6명 수준으로 줄었고, 한국인 인력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주로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인부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 하루 인건비는 13만 원 수준이다.

농민들은 “사람 쓰는 것도 힘들고, 중개인에게 별도 부탁을 해야 겨우 몇 명씩 받을 수 있다”며 “약값, 인건비, 자잿값까지 다 오르고, 수출이 아니면 국내 소비는 한계가 있어 밭에 놔두고 트랙터로 갈아엎을 때도 있다. 지금은 농사로 먹고 살기 어렵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전남도와 농협 등은 해외 각 나라별로 업무협약을 맺고 계절근로자를 공급하고 있지만 8개월 동안만 머무를 수 있는데다, 매년 바뀌는 탓에 숙련된 인력을 찾는 농가와 맞지 않다는 게 농민들 설명이다.

전남의 지난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수를 보면, 특정활동(E-7) 2022년 744명, 2023년 1991명, 2024년 2722명, 계절근로(E-8) 794명→3019명→5769명, 비전문취업(E-9) 1만5835명→1만9544명→2만2070명, 선원 취업(E-10) 3477명→3762명→390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전염병 방역 때문에 아우성=무안·영암 지역에서는 반복되는 구제역 감염으로 소·돼지 방역 초비상 상태다. 영암의 한우 농가는 구제역 확산으로 우시장 폐쇄, 출하 지연, 방역 기준 미충족에 따른 살처분 보상 감액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암에서만 한우 농장 13곳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인접 지역인 무안군에서도 6곳이 확진됐다. 구제역 확산 여파로 전국 우시장 경매가 중단되면서 한우 유통 구조가 마비됐다. 암소는 대부분 우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시장 폐쇄로 인해 약 70%에 달하는 암소 유통이 전면 중단됐다.

암소의 경우 품질 편차가 커 도축장보다는 우시장 거래에 의존도가 높은데, 거래 중단으로 사료비 증가, 출하 지연, 송아지 매매 불가 등 연쇄 피해가 나고 있다는 게 농민들 하소연이다.

송아지 생산 농가도 우시장 거래가 막혀 사룟값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거래도 감염 우려로 이뤄지지 않아 거래 자체가 멈춘 상황이다. 우시장 폐쇄 장기화로 출하 지연된 물량이 쏟아질 경우, 5월 이후 한우·송아지 가격 폭락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동구 전국한우협회영암지부장은 “농가들은 죽을 맛”이라며 “사료는 계속 들어가고, 출하도 못한 채 시간만 가고 있다”고 했다.

◇이상 기후 때문에 아우성=나주, 구례, 보성에서는 배·멜론·두릅 등에 냉해가 잇따라 농민들이 속앓이 중이다.

나주에서 배 농사만 50년 이상 지어온 황인춘(86)씨는 “이런 해는 처음 본다”며 “이상기온과 늦서리 피해로 수정 실패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황 씨는 “기온은 15도 이상은 돼야하는데 지금 암술이 얼어 수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꽃가루를 붙여도 결실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틀간 날씨가 좋았을 때 수정을 했지만, 그 이후 추위가 오면서 대부분 망쳤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농사를 지어봐야 수확이 어느정도일지 장담 못 한다”고 말했다.

구례 산수유 농가도 마찬가지다. 4월에 눈이 내린 건 드문 상황이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바로 피해를 입는 작물은 아니지만 개화 후 추위가 오면 피해가능성이 생긴다.

구례 산수유 농가를 운영하는 강승호(61)씨는 “요즘은 냉해를 막기 위해 일부 산수유밭에서도 새벽에 펜을 돌리거나 연기를 피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이런 대응이 필요 없었지만,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이제는 산수유 농가도 기후 대응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영암군 시종면에서 양파 1만3000평을 재배하는 허경집(71)씨는 수확 예정 시기인 6월 말까지 정상적인 생장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봄 가뭄까지 겹쳐 관수 작업도 예년보다 증가했다. 허 씨는 “평소 한두 번 물을 줄 것을, 올봄에는 다섯 번 이상 스프링클러를 돌려 2~3시간정도 물을 줬다”며 “양파가 얼어서 들떠버리고 뽑히고 언 자리에서 양파는 생장이 아예 멈췄고 올해 양파 농사는 시작부터 망했다”고 말했다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을 보면 2018년 4월 1만9795ha, 2019년 3~4월 3904ha, 2020년 4월 8237ha, 2021년 4월 3209ha, 2023년 4월 7127ha, 2024년 2~3월 1257ha 인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적십자 무료 급식소 문 열었어요 15일 광주시 북구 임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에 ‘적십자 무료급식소’가 문을 열었다. 무료급식소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1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다양한 메뉴로 구성된 중식을 제공한다. 봉사자들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점심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제주항공 참사 수사 왜 이리 더디나” 유가족들 항의

전남경찰청 방문 신속 수사 촉구
경찰 “사조위 협조 통해 수사 진행”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경찰을 찾아 미진한 수사에 대해 항의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5일 전남경찰청을 방문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이후 지금까지 경찰 수사 과정을 믿고 기다려왔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발표,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망과 우려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전남경찰청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결과에 따른 법적·행정적 조치 계획, 유가족 대상 정기 면담 및 수사 경과 브리핑 체계 수립 등을 공식 요청했다.

협의회는 또 7일 이내에 납득할 수 있는 공식 입장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변호인단을 통해 경찰의 책임 이행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전남경찰청은 이와관련, “무안공항 등을 압수수색 했고 관제 음성 파일, 건설 도면 등 총 1000여점을 확보하는 한편, 5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사고와 로컬라이저 간 인과관계 규명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블랙박스 FDR의 분석, 엔진 분해 조사 등에 대해서는 사조위와 협조를 통해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 입건 등 사법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또 땅 꺼짐…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바로 옆

지산동 너비 0.9m·깊이 1.7m
광주 5년간 싱크홀 109건 발생

광주 도시철도2호선 공사현장 인근에서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했다.

광주 지역에서도 지반 침하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광주일보 4월 15일 6면> 가운데, 최근 신고가 접수된 곳 인근에 싱크홀이 또 발생한 것이다.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 50분께 동구 지산사거리(필문대로 219) SK주유소 앞에서 싱크홀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

싱크홀은 폭 0.7m, 길이 0.9m에 깊이 1.7m로, 인명·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싱크홀 발생 장소는 최근 지반 침하 우려가 제기된 조선대사거리 앞 상가와 불과 800여m 떨어져 있다.

관할청인 동구는 경찰·소방과 협력해 사고 발생 지점인 2차선 도로에 신호수를 배치했으며, 흙막이판을 재설치하고 지반을 보강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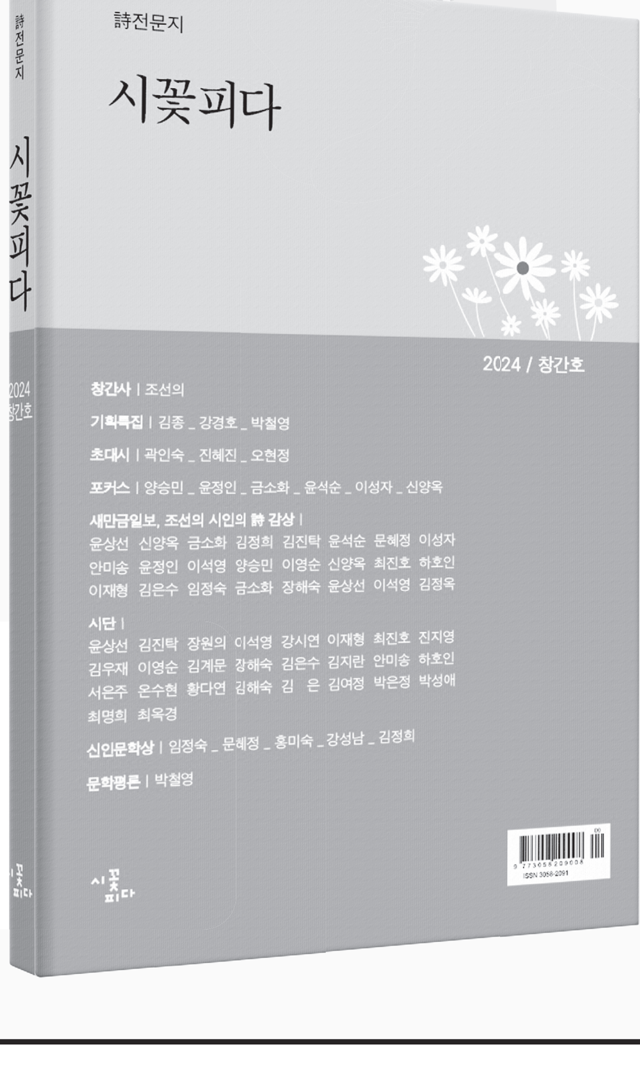
한편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광주 5개 자치구 내 싱크홀은 총 109건 발생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장 인근에서는 총 4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촉불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빛을 소환하다』『꽃 향기의 밀서』,『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